

# ‘시민주권정부’ 구축...초광역 통합 성공모델 만든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운영 방향

시민 참여 행정 ↑ 권역별 균형성장  
AI·에너지·모빌리티 미래산업 육성  
기본소득·광역교통망 확충 등 제시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정부로 첫발을 내딛는 가운데 ‘민형배 호(號)’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주권정부’를 기조로 행정 혁신과 균형발전, 산업 대전환에 초점을 맞춘 전망이다.

초대 특별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당선자는 시민주권,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사회,

녹색도시를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 혁신과 산업 대전환, 권역별 균형발전, 기본사회 구축, 에너지·교통 전환 등을 추진해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 참여를 행정 전반의 핵심 원리로 삼는 ‘시민주권정부’ 구축에 주력한다.

민 당선자는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군·구 기초자치권과 388개 읍·면·동 마을자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속의민주주의와 시민 공문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문화청, 청년주권청 등 분야별 시민주권기구도 운영한다.

행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위원회를 포함한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온라인 시

민주권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반도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성장통합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용 전기 100원 체계 구축과 AI 고속도로 조성,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 혁신을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자동차·광산업·가전·금형 산업은 AI 융합 산업으로 재편하고 여수 석유화학산단과 광양산단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와 농수축산업의 에너지·AI 융합,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로컬상권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인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권역별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균형발전기

금을 운영해 시·군별 산업·정주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한다.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기관과 산업을 재배치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본사회 특별시 실현을 목표로 ▲농어촌 기본소득 및 마을일급 프로젝트 추진 ▲인구소멸지역 우선 지원 ▲돌봄·복지·의료 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기본사회지원센터 중심 추진 체계 마련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도시 분야에서는 에너지·생태·교통 전환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광주 공공항 이전 부지를 100만평 규모 도시숲과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영산강과 섬진강, 해양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 광주-나주-목포-순천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버스·철도 통합 요금 체계와 환승 시스템을 마련한다. 농산어촌 공공형 교통 확대와 도시철도, BRT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 강화도 병행한다.

통합특별시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 3청사 균형 운영 체계를 기본으로 권역별 책임 부시장제를 도입, 특별시장이 일정 기간 권역별로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합 초기 100일 계획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 체계 구축, 부시장 시민추천제 도입, 갈등조정기구 운영, 행정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고 시민주권 기반의 통합특별시 운영 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변은진기자

## 언론인 출신 광산구청장·국회의원 역임

### 민형배 당선자는 누구

언론·지방행정·청와대·국회 두루 경험  
검찰개혁·기후대응 입법 주도 존재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언론인, 광주 광산구청장,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을 거치며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두루 경험한 정치인이다.

1961년 해남 마산면에서 태어난 민 당선자는 해남마산초, 해남중, 목포고를 거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창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이후 그의 정치·사회 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전남일보에 입사해 기자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을 누볐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언론의 공공성과 지역 목소리 대변에 힘써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민사회 영역으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참여자치의 공동대표를 맡아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이를 계기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발탁돼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실과 인사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맡아 국정 경험을 축적했다.

민 당선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광주 광산구청장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

다. 2014년 광산구청장 재선에 성공하며 지역 행정가로써 입지를 다졌다.

전국 최초 구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동장 직선제 도입 등 혁신 행정을 추진해 주목받았다.

2018년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다. 이후 광산구를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자치발전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았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음주 측정 불응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첨단

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도 힘을 보탰다.

정치적으로는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진명계 핵심 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대통령 선거 싱크탱크인 ‘성공포럼’ 공동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 위원장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당내 영향력을 넓혔다.

2025년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치검찰사건조사특별대책단장을 맡아 당내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끌 첫 수장이 된 민 당선자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경쟁력 강화, 전남·광주 균형발전 기반 구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은진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3일 오후 광주 서구 마락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보고 있다. /조영권 기자

## “압도적 성장으로 통합 성공 이끌 것”

###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소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셨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민 당선자는 “전남광주는 너무 오래 서러왔다.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는 피 흘렸다”며 “이 서러운 역사를 끝내고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새로운 미래

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통합특별시의 문 앞에 섰다”며 “이 새로운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지역이 주도하는 압도적 성장의 길을 전남광주가 가장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또 “전남의 에너지와 광주의 첨단 AI·문화 역량을 결합해 산업과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겠다”며 “성장의 결실이 모든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 당선자는 “청년에게는 고향에서 꿈꿀 기회를, 아이 키우는 가정에는 든든한 돌봄을,

어르신에게는 가까운 병원과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겠다”며 “그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당선자는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시민주권정부를 세우겠다”며 “주권자 시민의 뜻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밝힌 비전을 재확인했다.

민 당선자는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 당선자는 “차별과 소외의 시절은 가고 새로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대가 시작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KOTAC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